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 16호 2004년 4월 23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전국 5개 대학에 창업대학원 개설

중소기업청은 전국 5개 대학에 창업대학원을 개설키로 하고 서울권에 호서대학교(서울), 경기권에 중앙대학교(안성), 충청권에 한밭대학교, 전라권에 예원예술대학교, 경상권에 진주산업대학교 등 권역별 창업대학원 개설·운영 대학을 선정·발표하였다.

이 창업대학원은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간 대학과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창업강좌가 전문요원 부족,

전담체계 미흡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 이를 보완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창업대학원은 대학당 30명 내외의 학생을 모집하여 주간 2년, 야간 2년 6개월 과정의 창업학 석사과정의 특수대학원이 될 것이며, 금년 6월 중에 선정된 대학과 중기청간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개강준비, 수강생 모집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 개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창업대학원 개설대학으로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는 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에서 향후 5년 동안 매년 4억~6억원(총 20~28억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창업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등록금 등 학비 일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숙사를 제공하고 재학중 연간 2회의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며, 졸업시에는 창업학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창업 종잣돈(Seed Fund)도 제공될 전망이다.

앞으로 창업대학원에 관련된 내용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창업벤처국**
소기업창업과
(042-481-4411)

벤처캐피탈업계 연찬회 개최

- 벤처캐피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본격 추진 -

중기청과 벤처협회가 공동으로 4.21일부터 2일간 일정으로 창투업계와 벤처투자 출자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벤처캐피탈업계연찬회」를 개최하여 산업의 선진화와 제도약을 다짐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을 벌였다.

이날 연찬회에서 유창무 중소기업청장은 우리 경제의 제도약과 선진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벤처캐피탈을 하나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Private Equity시장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KOSDAQ시장과 M&A를 통한 투자회수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벤처캐피탈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벤처캐피탈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채정(1천억원)을 활용하여 4,600억원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외국계 투자기관과 공동으로 1억불 규모의 Global Star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벤처투자 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창투사의 법령위반여부, 재무상태, 투자현황 등을 종합평가하여 정부출자를 차등지원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창투조합 운영실적, 위법사항 등 창투사의 투자활동을 공개하는 ‘창투사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며, 불법행위 창투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벤처캐피탈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한 M&A 제도개선을 마무리한데 이어 향후 M&A (200~300억원 규모) 전용펀드 결성 및 M&A거래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투자회수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아울러, 창투사 고유계정의 투자의무비율을 재조정 또는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창투사 또는 창투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실자산처리 전문펀드’ 조성방안을 검토하며,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허용 등 벤처캐피탈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벤처창업국
벤처진흥과
(042-481-4487)



중소·벤처기업 M&A 컨설팅(중개)비용 지원 - 소규모 미공개 기업 저렴한 비용으로 M&A 가능 -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4.19일부터 M&A를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건당 최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M&A 컨설팅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은 그동안 수익성 등을 이유로 M&A 전문기관(은행 등 금융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기술거래기관, M&A컨설팅전문회사 등)이 참여를 기피해 온 소규모·미공개 기업의 M&A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재무제표상 순자산액이 30억원 이하인 비상장·미등록(미공개) 중소·벤처기업이 M&A 전문기관과 3개월 이상 컨설팅(중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해 M&A 컨설팅(중개) 착수금의 50% 이내에서 건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M&A 중개비용 지원으로 인하여 소규모·미공개 중소·벤처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 M&A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M&A의 성공 및 실패사례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활용함으로써 M&A의 실패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기청은 M&A 중개활동을 통해 M&A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4.22일(목) 10:00부터 한국기술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기업은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과(042-481-4387)나 한국기술거래소 M&A사업본부(02-6009-4305)로 문의하면 된다.

▶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
(042-481-4387)

비즈쿨 고교생, 주식회사 설립도 척척

- 사업결정에서 창립총회, 사업개시 고교생이 합니다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비즈니스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비즈쿨 교육 프로그램이 금년으로 3년차를 맞아 전국 80개 비즈쿨 시범학교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일산정보산업고의 (주)10Minutes(학교매점), 광주자연과학고의 (주)녹수산업, 신일정보산업고의 비전트(주) 등은 회사 설립 과정과 사업경영 활동을 체험하는 Company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신일정보산업고의 비전트(주)는 보드게임, 비즈공예 등 5개 독립사업부와 100여명의 임직원을 둔 회사로 그동안 시장조사, 기존업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한 사업아이템 결정, 발기인 모집, 정관작성, 주주모집 까지 학생들 스스로 준비하였고, 4월 23일 열리는 창립총회에서 임원과 정관,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비전트(주) 체크리스트(보드게임사업부)를 맡고 있는 CEO 최인식군(2학년)은 “PC방을 전전하는 친구들에게 학내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하여 학교가 재미있도록 만들고 싶다” 면서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상규 지도교사는 “주식공모에 300여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했다” 며, “평소 무기력했던 학생들이 놀라운 정도의 참여도를 보이며, 경제와 경영에 대한 학습의 욕도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시장경제에 대한 원리도 이해하고 있다” 고 자랑하였다.

비즈쿨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업 전(前)단계의 창업동아리는 전국에 200여개가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중 특히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분야

의 창업동아리로는 인천자연과학고의 블랑쉬(드레스 메이킹), COAL(창작 애니메이션), 일산정보산업고의 데님갤러리(핸드 페인팅), B&B(아트 풍선) 등이 있다.

이러한 창업과 경영에 대한 경험으로 반(反)기업정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고실업 시대에 자기직업창조능력도 배양되어 건전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비즈쿨 시범학교 이외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해서도 비즈쿨 홈페이지(www.bizcool.go.kr)를 통해 교재 및 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고, 교사연수과정도 개방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02-509-7033)

경기회복 반영 신설법인 두달째 증가

- 3월중 신설법인 동향, 창업시장 회복세 돌아서 -

신설법인이 두달 연속으로 늘어나 경기회복 조짐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설법인 수는 4677개로 지난 2월에 비해 6.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설법인은 지난 1월 4069개, 2월 4386개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창업시장이 본격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신설법인이 각각 1066개, 2819개로 전월대비 4.2%, 10.7% 증가했다. 제조업 중 출판·인쇄업(28.9%), 전기·전자·정밀기기업(27.5%), 섬유·가죽업(15.6%)은 전월에

비해 증가한 반면, 목재·가구업(-14.9%), 기계·금속업(-8.6%)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월에 비해 상승했고 울산, 충남지역은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부산, 인천, 수원, 강원지역은 감소세가 계속됐다.

한편, 신설법인의 수는 증가한 반면, 부도법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3월 부도법인 대비 신설법인의 배율은 전월(17.7)보다 상승한 20.7을 기록했다.

▶ 중소기업정책국
정책평가과
(02-503-7932)

2월 중소기업 경기 상승, 5월까지 지속 전망

2월중 중소기업 경기는 전월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5월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의 『최근 중소기업 경기국면 분석과 전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기흐름을 나타내는 『중소기업 경기국면지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증가한 이래, 금년 1월 소폭 감소하였으나, 2월에는 전월(102.9)에 비해 0.8% 증가한 103.7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생산(1.5%), 출하(2.2%), 가동률(1.6%) 및 노동투입량(1.9%) 등 전부분의 지수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생산, 재고, 자금사정, 채산성 등 중소기업의 5대 경영환경을 지수화한 『중소기업 경영환경지수』도 2월중 전월 대비 0.7% 증가한 100.8을 기록하여, 지난해 8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록 노동생산성지수(-0.4%) 및 자금사정지수(-0.5%)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고용지수(0.9%), 재고순환지수(1.6%) 및 채산성지수(0.1%)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전체 지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환경지수를 활용하여 5월까지의 중소기업 경기국면지수를 예측한 결과, 지난해 4/4분기 이후

상승세를 보인 중소기업 경기는 3월 104.1(0.4%), 4월 105.0(0.2%), 5월 104.9(0.0%)로 나타나 5월까지 상승세를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소기업정책국
정책평가과
(02-503-7932)

81개 지역향토산업 적극 육성

중소기업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 보성군 녹차, 충북 음성군 향토와인, 경북 영양군의 장뇌삼 등 47개 시·군의 산업을 지역향토산업으로 지정하여 적극 육성키로 하였다.

지난 1월 26일 1차로 34개 시·군의 향토산업을 지정하는데 이은 이번 지정은 재정자립도 30%미만인 10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성(차별성), 전통성(전래성), 지역경제기여도 등 산업경쟁력을 선정기준으로 심사하여 선정하였으며, 선정한 향토산업에 대해서는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및 지원자금 특례보증 등 각종 지원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또한 내년부터 향토산업에 대한 지원자금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에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02-509-7033)